

“예비 간호사로 생명·돌봄 가치 증명하겠다”

광주시간호사회 간호리더 봉사단

광주 12개교 간호학과 대학생 구성
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MOU
현혈문화 확산·보건의로 발전 기여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비 간호사로서 생명과 돌봄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시간호사회 간호리더 봉사단(회장 박범진)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혈 문화 확산과 지역보건의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12일 광주시간호사회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박범진 간호리더 봉



광주시간호사회 간호리더 봉사단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현혈 문화 확산 및 지역 보건의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간호사회 제공>

사단 회장, 손아람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장, 이하늘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장, 이하정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장 및 센터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 소재 12개교 간호학과 대학

생으로 구성된 간호리더 봉사단과 광주전남혈액원은 정기적인 현혈 캠페인 운영, 보건의로 관련 공동 교육 활동, 봉사 활동 지원 등 현혈 참여 확대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



담양 대덕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담양군 대덕면은 12일 “담양군문화재단 주최, 대덕면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담구석문화배달 & 대덕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덕행복나눔터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읍·면 단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행복나눔터에서는 광광슬로보존회와 양상을 간타빌레가 공연을 선보였으며 나눔터 동아리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수해 이재민 돕기 나눔도 이어졌다. 대덕면주민자치회는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대덕교회는 100만원의 수해 의연금, 문중옥 ㈜운현공상무는 500만원 상당의 이불을 기탁했다.

이마형 대덕면 주민자치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힘을 보탬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남대 대학원 경제학과 BK21팀 교수 임용·SSCI 논문 게재 ‘눈길’

해외 공동연구 성과 잇따라

지역 혁신 경제 연구에 박차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BK21 FOUR 사업팀(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용적 지역혁신 인재양성팀·팀장 이찬영 교수)이 최근 뛰어난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을 앞둔 장초원(Zhang Chuyuan)씨는 9월1일부터 중국



정초원 김두리

대학원 재학 중 SSCI 저널에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탁월한 성과에 따른 것으로,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이 다수의 SSCI 논문을 발표

한 사례는 매우 드물어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공동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김두리 박사과정생은 이상호 전남대 교수, 바실리오스 지코스(Vasileios Zikos) 테

국 출랑롱콘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Energy Economics’에 제1저자로 논문 Environment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dogenous R&D Networks를 지난 7월 온라인 게재했다. 해당

논문은 오는 9월호에 최종 수록될 예정이다.

‘Energy Economics’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142를 기록한 경제학 분야 상위 1% 이내의 국제 저명 SSCI 저널이다.

이상호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재학 중 SSCI 급 국제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고 졸업과 동시에 교수로 임용되는 모습을 보며 연구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경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호남대, 수험생 전공 체험 ‘호캉스’ 성료

호남대학교가 예비 수험생들에게 전공 체험과 입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호캉스’ 행사를 개최했다.

12일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9월8-12일)을 한 달여 앞둔 최근 3일간 예비 수험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학과 체험 행사 ‘호캉스’를 진행했다.

행사는 35개 학과별로 강의실·실습실·연구실에서 전공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교수진과 재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아이스크림과 함께 무더위 탈출’, ‘보물찾기·수시모집 꿀정보’ 등 재미와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결합한 이벤트도 선보였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이번 체험은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과 선택과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는 기회”라며 “즐거워 참여해 소중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현진 기자



광주시교육청,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전달

광주시교육청은 12일 본청 교육감실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구제길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열매) 회장, 이상철 광주 아나소사이터티 회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성금 880만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지난 7월28일·8월11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 374명의 참여로 모금이 이뤄졌다. 전달된 성금은 광주 지역 피해 긴급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교육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성금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금은 지난 7월28일·8월11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 374명의 참여로 모금이 이뤄졌다. 전달된 성금은 광주 지역 피해 긴급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선옥 기자



전남도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연수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 7월1일자로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돼 22개 교육지원청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자 45명이 참여했다.

연수 첫 강에서는 이석철 ㈜웹툰에스코리아 대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해 시스템 활용 능력 제고를 도왔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배송수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기술협회의장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안전은 학교 교육의 기본이며 이번 연수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옥 기자



전남 선도농업인 연합회 워크숍…우수 농업인 표창

전남도는 12일 강진군 강진아트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주용 전남도의회 농수산부위원장, 이병철 강진부군수,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사장, 선도농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남 선도농업인 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선 전남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선도농업인 10명이 김영록 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표창은 ▲식량 분야 문병숙(강진)·김종석(진도)씨 ▲시설원예 분야 노광숙(영암)·양희경(화순)씨 ▲가공유통 분야 김해옥(순천)·양동훈(신안)씨 ▲축산 분야 김승순(함평)·추교

전(보성)씨 ▲임업 분야 육미영(화순)·전형관(고흥)씨가 수상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특강도 진행됐다. 오전엔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사장이 ‘기후위기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화의 중요성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후에는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김석민 농작물팀장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강의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는 “선도농업인은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농촌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전남 농업 혁신의 중심에 언제나 선도농업인들이 있다”고 격려했다.

/김재정 기자

목포시 용당2동바르게살기회 ‘해양스포츠 체험 행사’

목포시 용당2동바르게살기위원회는 12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청소년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 및 점심 식사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과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아동 30여명과 안전요원 10여명이 참여했으며, 용당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차량을 지원했다.

참여 학생들은 안전 교육을 받은 후 목포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팽목보트, 제트보트, 디스코광광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기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냈다. 물놀이 후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준비한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종태 용당2동바르게살기위원장은 “안전하



고 즐거운 해양 체험과 맛있는 식사로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오세은 용당2동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